

논문접수일 : 2013.02.07

심사일 : 2013.04.04

게재확정일 : 2013.04.25

## 이상 시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표현의 환각이미지

-오감도 중 '시 제11호'와 '시 제 13호'를 중심으로-

Hallucination image of surrealism expression shown in poems of Yi Sang

- focused on 'poem No. the 11th' and 'poem No. the 13th' among Ogamdo-

주저자 : 김준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시각디자인과 교수

**Kim Jun-kyo**

Chung-Ang University

공동저자 : 이고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시각디자인과

**Lee Go-eun**

Chung-Ang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3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지원금으로 연구되었습니다.

## 1. 서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 1.2. 연구방법과 범위

## 2. 이상 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 2.1.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
- 2.2. 이상의 인격형성

## 3. <오감도>의 고찰과 초현실주의의 특성

- 3.1. '시 제11호'와 '시 제13호'의 해석
- 3.2. 초현실주의의 배경과 특성

## 4. 이상 시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 4.1. '시 제11호'와 '시 제13호'에 나타난 환각 이미지의 초현실주의적 특성
- 4.2. 초현실주의에 나타난 환각이미지

## 5. 결론

참고문헌

## 논문요약

21세기 현대사회의 동시대인들은 불안한 사회현상과 경제적 공황, 물질만능의 시대적 아픔과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정책의 모순된 삶 속에 불안, 공포 억압 등을 느끼며 병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동시대인들은 이성보다는 감정, 의식 보다는 무의식 세계에서 자아를 찾으려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이에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동시대의 비슷한 삶을 경험한 이상의 시를 분석하여 미술사의 흐름 중 초현실주의에서 이미지를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시각문화가 변화하는 사회 현상 속에 과거의 역사로 치부되어 왔던 사건들을 통해 동시대를 바라보는 올바른 안목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19세기말적 불안과 20세기 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암울한 시대적 고민을 자신만의 독특한 시적 언어로 승화한 이상의 시세계와 초현실주의 속 환각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표현의 동일화 과정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의 주관된 생각이 라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지나친 산업의 발전과 비약적인 과학

의 발전, 식량난, 경제 불황, 자연재해, 과도한 무한 경쟁, 병적인 스트레스 속의 우울 등에서 동질감을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오감도는 이성적인 자아의 주체성이 붕괴되고, 혼란을 겪으면서 1930년대 신문물의 과도한 노출을 통해 낯선 것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불안의 심리적 체험을 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상의 오감도 중 '시 제11호'와 '시 제13호'의 텍스트를 해석하여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이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능동적 글 읽기를 유도하여 문학과 그림을 이해하는 유연한 사고력과 현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부여한다.

**주제어: 오감도, 환각, 초현실주의**

## Abstract

Contemporaries in the 21st century are exposed to diseased stress feeling anxiety, fear, suppression etc. in the unstable social phenomena, economic panic, pain of era pursuing only material, contradictory life of social policy to pursue welfare. In the midst of quickly changing society, contemporaries find themselves to seek self in world of sense and unconsciousness rather than reason and consciousness.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proceeded with work to seek image from surrealism among flow of history of fine arts analyzing poems of Yi Sang who experienced similar life as contemporaries under Japanese colony in 1930s. This trial aims to getting right eye to see contemporary era through events which put behind as a history of the past in the midst of social phenomenon where our visual culture changes.

Identification process of poetic world of Yi Sang and visual expression about illusion image in the midst of surrealism cannot be put aside as subjective thoughts of the author - Yi Sang sublimed agony of dark era about anxiety of late 19th century and uncertain future of early

20th century into his own unique poetic language.

Sympathy can be sought from present excessive industrial development, rapid scientific development, difficulty of obtaining food, economic depression, natural disaster, excessive limitless competition, melancholy, diseased stress etc.

As he faced collapse of identity of reasonable self and experienced disorder, Ogamdo of Yi Sang says about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newness and anxiety of appearance of unfamiliar one through excessive exposure of new civilization in 1930s. This study intends to draw image from paintings of surrealism by interpreting text of 'poem No. the 11th' and 'poem No. the 13th' among Ogamdo. This could provide flexible thinking to understand literature and pictures, and diversity of vision to see present era by inducing positive reading through visual image of poems.

**Keyword : Ogamdo, hallucination, Surrealism**

## 1. 서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이 논문은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상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시각표현의 다양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작가와 독자 사이의 상호교환이 가능한 열린 텍스트로서 이상 문학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디자인의 특징은 열린 사고와 감성으로 상호 유기적인 대상을 파악하며 눈에 보이는 대상의 분석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상의 텍스트는 난해하다는 이유로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열린 텍스트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이상 시의 <오감도> 중 '시 제11호'와 '시 제13호'를 본 논문의 분석대상으로 하여 텍스트의와 시각표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재인식하고자 한다. 오감도는 1930년대 일제치하에서 자신의 천재성에 기인한 시인의 전반적인 글쓰기가

고스란히 녹아 들어간 작품이다. 이 중 자신의 신체훼손이라는 환각적 이미지가 나타난 '시 제11호'와 '시 제13호'를 중심으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상의 인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완성된 이상의 시 세계를 분석해봄으로써 독자의 글 읽기에 대한 상상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 제11호'와 '시 제13호'에 나타난 주체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시적자아의 이미지와 초현실주의와의 상관성을 밝히는 것은 이상 탄생 100주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생애와 문학이 오늘날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회자되는 것을 볼 때 디자인의 시각에서 텍스트를 바라보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 디자인의 다양한 사고의 전환을 유도한 초현실주의적 특성을 이상 시의 텍스트에서 도출하여 시각적 이미지로의 연결을 통해 텍스트가 내포하는 다양한 기호와 상징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폭넓은 사고의 확장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의의이다.

## 1.2 연구방법과 범위

이상 문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을 통해 이상의 인격형성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문학이란 시대적 문화적 산물이기에 시대적 상황 속에 고뇌하는 작가의 문학정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상 문학의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바 국내 이상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권영민(이상전집 1, 뿔, 2009)의 원문텍스트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일문시와 한자가 많은 이상 시를 한글세대의 독자에 맞게 현재 맞춤법 규정에 근거하여 수록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둔 것이다.

<오감도> 중 '시 제11호'와 '시 제13호'의 연관성을 찾아봄으로써 신체 훼손을 통한 환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디자인적 관점에서 이상 시의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현대 디자인의 흐름에 영향을 준 초현실주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각적인 사례로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이미지를 찾아봄으로써 능동적 글 읽기에 참여하는 독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상의 근거를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텍스트의 시각화에 대한 사고의 유연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게 할 것이다.

일본 식민지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한국 현대 문학의 진수를 보여준 이상의 작품 중에서 기존의 시 형식을 벗어나 그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보여준 <오감도>중 '시 제11호'와 '시 제13호'를 통해 이상의 시가 비단 문학적 텍스트에 머물지 않으며 시각적 텍스트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재인식 하고자 한다.

## 2. 이상 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 2.1.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현대 과학기술과 문명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세기말을 거치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 등장하여 심리학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예술분야에서는 표현주의 이후 입체파가 등장하고 문학의 경우 의식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는 심리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상은 바로 이러한 과학문명과 예술의 전환기적 상황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그 자신의 문학세계를 새롭게 구축했던 것이다.(권영민, 2012)

세기말적인 불안감과 전쟁의 공포,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적 문학·예술 운동으로 인간과 사회질서의 윤리와 예술까지 부정한다.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획일화되어가는 사회구조는 초현실주의라는 새로운 예술 사조를 탄생시켰고 이상의 문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근대화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의 희망과 식민지라는 현실아래 참혹한 공포와 불안은 다양한 색채와 언어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의 부정은 이상의 문학 속에서 현학적 언어로 재탄생되어지고 식민지 치하의 조선에서 개인이 느끼는 역사적 자각은 현대 서구문화의 수용 안에서 문학적 텍스트를 넘어 시각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3.1운동의 좌절로 식민체제가 공고화되어지면

서 서구문화의 수용이 문화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이 문화는 이전의 시기와 구별되는 다양한 예술 사조를 받아시켰다.(한상철, 2006)

### 2.2. 이상의 인격형성

이상의 본명은 김해경으로 한일합방이 선포된 직후인 1910년 음력 8월 20일 경성부 북부 순화방 반정동에서 아버지 김연창과 어머니 박세창 사이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1937년 음력 3월7일 동경제대 부속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1) 가난한 집안의 사정에 따라 당시 자식이 없었던 큰아버지에게 입양되어 자라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큰어머니의 무관심 속에 철저히 혼자 버려지게 된다.

미술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던 이상은 큰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경성고등학교에서 건축과 기하학을 배우게 되고 상당한 재능을 보여주는데, 건축과 수학에 대한 재능이 그가 발표된 시를 통하여 발현하게 된다.

이상은 회복 불가능한 폐병과 암울한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절망적인 삶을 살다간 불운한 천재로써 그의 문학 전반에 불안과 우울을 내포하고 있다. 근대의 사회적 영향으로 신지식을 흡수한 이상은 엘리트였지만 식민지 치하 속에서 가난한 부모를 떠나 큰집에서 양자로서의 삶에서 형성된 심리적 영향은 그의 문학 전반에 깔리게 된다.

이상이 보여준 독창적 미학은 당대의 문화가 지닌 전환 논리에 대한 격렬한 예술적 반응이자 개별적 주체의식의 의식적 자기부정을 포괄하는 문화의 한 접점이었다.(한상철, 2006)

가족에게 버려진 고독감과 가난에 대한 열등감, 허약한 체질에 대한 우울함으로 인한 자의식이 그의 문학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2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천재시인 이상이 남긴 시는 현대문학 100년사에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 3. 오감도의 고찰과 초현실주의의 특징

<오감도>는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7월24일부터 8월8일까지 연재하다 독자들의 비난에 의해 중단된 총 15편의 연작시 표제이다.(김동근,

1) 권영민 편(이상전집1, 뿔 2009, 389-401)이상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참조할 것.

2001)

이상 시의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적 기호 해석의 다양성은 열려있는 텍스트이다.

본 연구자는 이어령의 해석에 따라 <오감도鳥瞰圖>란 까마귀와 같은 눈으로 높은 곳에서 인간들의 삶을 굽어본다는 뜻으로 연구의 바탕을 삼고자 한다. '까마귀'라는 불길한 이미지는 암울한 시대상과 맞물려 <오감도> 15편의 시에 총체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이상의 사물을 대하는 독특한 시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찰자로서의 새로운 시각은 그의 시 문학에 다양한 표현을 낳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그의 시를 난해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사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접근은 텍스트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 놓았다.

<오감도>의 텍스트 체계는 일반적인 시 창작 방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기호적 논리에 의한 대칭과 병치, 나열 이러한 기호들을 시각적으로 조합하여 구도적 의미를 파생시키고 있으며 <오감도>의 시적 의미는 그 기호들로 구도화된 텍스트의 체계 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것이며, 육체의 눈이 아니라 자의식의 눈으로 그려낸 시각에 술이라는 점이 <오감도>의 텍스트성이라 할 수 있다.(김동근, 2001)

이상은 불길하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오감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시적분위기를 예고하고 있으며, 불우하고 허약한 그의 삶에 깔려있는 현실과 죽음에 대한 자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이상은 언어를 통한 현실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나 예술의 상징적 중재가 아닌 시각적 형상을 통한 의미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언어적 특성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의 시각적 형상 언어들은 단순한 현실의 제시라기보다는 시각적 형상을 통한 새로운 시적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박승희, 2006)

### 3.1. '시 제11호'와 '시 제13호'의 해석

#### 시 제11호

그사기킵은내해골과흡사하다.내가그킵을손으로  
꼭쥐었을때내팔에는난데없는팔하나가접목처럼돋  
히더니그팔에달린손은그사기킵을번쩍들어마룻바  
닥에메어부딪는다.내팔은그사기킵을사수하고있으  
니산산이깨어진것은그럼그사기킵과흡사한내해골  
이다.가지났던팔은배암과같이내팔로기어들기전에

내팔이혹움직였던들홍수를막은백지는찢어졌으리  
라.그러나내팔은여전히그사기킵을사수한다.

(권영민, 이상전집 1, 2009, 뽕)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신의 신체훼손을 통하여 자아의 정신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를 환각적 이미지로 가시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깨지기 쉬운 사기킵은 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고뇌하는 시인자신이다. 해골을 닮아 있는 그킵을 사수하려는 “그킵을손으로꼭쥐”는 팔과 또 다른“난데없는팔”이 등장하여 “그사기킵을번쩍들어마룻바닥에메어부딪는다”.

“사기킵”을 파괴하려는 손과 그것을 사수하려는 팔사이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은 다만 “내해골”의 파괴와 사수를 둘러싼 모순되는 내적이미지들 간의 긴장과 갈등을 가시화하기 위한 전치의 방식일 뿐이다.

이상 시의 이미지가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무의식을 이미지로 가시화 하는 것이다.(함동균, 2010)

이상은 식민지 치하의 암울한 현실 속에 폐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깨지기 쉬운 사기킵과 해골에 비유함으로써 절망감으로 치닫는 자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조형적으로도 하얀색 사기킵과 해골은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홍수를막은백지” 또한 하얀색 사기킵과 유사하다. 형태와 색채의 유사성을 이용한 시적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읽히지며 환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홍수를막은백지”는 표면적으로는 조형적 유사성에 근거한 물을 담고 있는 사기킵의 은유가 되지만 텍스트의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깨지기쉬운 “내해골”의 공포 체험을 담고 있는 “내해골”의 심리적 은유가 된다. 백지는 그 자체로 깨지기 쉬운 “내해골”의 이미지화이며, 한편으로“킵을손으로꼭쥐”면서 가까스로 “내해골”을 사수하고 있는 시적주체의 하얗게 질린 공포의 그자체로 이미지화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함동균, 2010)

“가지났던팔은뱀과같이내팔로기어들기전” 즉 “접목처럼돋”힌 팔이 “사기킵”을 깨뜨리려는 상황에서 “그킵을손으로꼭쥐”었던들 “내팔이혹움직였던들” “사기킵(내해골)”은 결국 산산이 깨졌을

것이라는 절망 속 공포의 상황이 환각적 이미지 묘사로 잘 드러나 있다.

이상 시에 나타나는 무의식적 공포의 이미지는 ‘환상’이 아니라 ‘환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라캉(Jacques Lacan)에 의하면 정신분석 관점에서 환상은 주체와 타자 모두에 내재한 존재의 결여를 은폐하는 주체의 ‘상상적’ 운동방식이며, ‘환각’은 주체와 타자가 ‘실재계’의 영역에 속하며 시적주체의 의지에 의해 무의식을 표출한다. 즉 이 시에서 이상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는 시적 자아의 의지에 의해 표현된 환각이미지라 할 수 있다.

### 시 제13호

내팔이면도칼든채로끊어져떨어졌다.자세히보면무엇에몹시위협당하는것처럼새파랗다.이렇게하여잃어버린내두개팔을나는촉대세움으로내방에장식하여놓았다.팔은죽어서도오히려나에게집을내는것만같다.나는이러한않다란예의를화초분보다도사랑스레여긴다.

(권영민, 이상전집 1, 2009, 뿔)

‘시 제13호’는 이상의 시에 나타나는 환각적 이미지가 여전히 극단적 대립과 긴장의 양상을 보이면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시적 주체(화자)인 ‘나’의 언술태도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내용과 태도 양측면으로 이중의 아이러니를 연출하는 경우이다.(함동균, 2010)

‘시 제13호’는 ‘시 제11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 훼손을 통하여 무의식 속에 공포이미지를 묘사하는데 “내팔이면도칼든채로끊어져떨어졌다”는 내팔이 “사기껍”을 들어 깨뜨리는 ‘시 제11호’의 상황과 유사한 환각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절단된 신체의 이미지는 식민지라는 절망적 현실 속에 올바르게 설 수 없는 시인의 모습은 투영하며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자아의 자율적인 의지로 신체 훼손을 감행하는 태도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극적인 대립과 긴장을 느끼게 해준다.

“팔은죽어서도오히려나에게집을내는것만같다”라는 표현은 역설적인 공포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아이러니한 시적 표현은 자아의 내면의지가 공포 속에서도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사기껍을번쩍들어마룻바닥에메어부딪”치는 “내 팔”과 “내팔이면도칼든채로끊어져떨어”지는

‘시 제11호’와 ‘시 제13호’는 절망적인 현실을 부정하려는 시적주체의 환각적 이미지가 묘사되고 있다.

“자세히보면무엇에몹시위협당하는것처럼새파랗다”라는 표현은 공포의주체가 되고 있는 “내 팔”을 의미하고 있는데 “팔은죽어서도오히려나에게집을내는것만같다”라는 표현에서 “내팔”은 공포의 대상 되는 아이러니한 환각적인 태도를 보인다.

훼손된 자신의 팔을 촛대로 장식하여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에서 절망적인 공포를 받아들이는 초월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절단, 훼손이라고 하는 신체의 죽음 존재론적 결여가 야기하는 극단적인 공포는, 그 공포 자체를 응시하는 태도를 통해 공포를 느끼는 주체가 오히려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역전된다.(함동균, 2010)

‘시 제11호’와 ‘시 제13호’를 통해 이상은 훼손된 신체의 묘사를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식민지치하라는 시대상황, 20세기 초 현대문명에 대한 불안을 환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초현실주의 배경과 특성

초현실주의(Surréalisme)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직전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적 문학·예술운동으로 인간과 사회질서의 윤리와 예술까지 부정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의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방법을 제시하였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전통적인 인간학에 일대변혁을 가져왔다.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는 1917년 시인인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새로운 예술의 창조를 위한 예술파괴를 뜻하는 것으로 탄생되었다.(김은영, 2005)

19세기말적 불안과 20세기 초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모순적인 상황에서 세계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보여준 망상과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현대적 사고의 흐름 속에서 자아상실의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20세기 초 프랑스 전위 예술가들은 유럽의 합리적인 이원론에 기초하는 이성에 대한 반발, 즉 언어를 거부하고 오히려 꿈과 몽상, 광기, 더 나

아가 신비적 상상력으로 구상되는 공간적 표현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문학과 미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는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세계와 신화와 같은 초월적이고 신비적 세계인 비합리적 사고와의 조화라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에 이른다.(정광흠, 2004)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무의식의 흐름이나 자동적 글쓰기를 통해 충동적이며 환각적인 이미지를 쏟아냈으며, 인간정신의 해방을 기본 목표로 삼으며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탐구하는 자유로운 사고의 유연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초현실주의의 창조예술은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재현하는 비합리주의와 무의식의 세계를 또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고 모든 존재물의 본성과 변화에 적용하여 가장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갔다.(정광흠, 2010) 현실을 뛰어넘는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자아의 본질을 탐구한 초현실주의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초현실주의의 특성	
1	디페이즈망 기법을 통해 꿈속에서의 형상과 같은 상태를 표현하였다
2	무의식의 흐름을 자동적인 글쓰기와 드로잉으로 나타냈다
3	우연에 의해 나타나는 콜라주와 프로타주 기법을 사용하였다

[표 1] 초현실주의의 특성

초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미술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새로운 미술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시각의 공간성 활동영역을 넓게 만들고 체험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김은영, 2005) 시각의 공간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표현으로 실제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원근법에 기초한 형식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초현실주의는 사물과 대상의 가시적인 측면 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영역까지 사고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디자인적 발상의 전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실과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미지 연출은 현대 디자인의 영역에 있어서 포스터, 광고, 일러스트 등에 표현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수용자의 상상력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 초현실주의의 의의는

19세기 말까지 현실적 재현에 머물러 있던 시각을 다양한 사물과 대상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 경험을 통한 표현으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자아의 본질적인 자유를 드러냈으며 현실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찾아냈다는 점이다.

#### 4. 이상 시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 4.1. '시 제11호'와 '시 제13호'에 나타난 환각이미지의 초현실주의적 특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현실주의는 자아의 내면 세계를 중시하며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개인의 감정 표출에 주안점을 둔 문학·예술적 흐름이다. 19세기말적 불안감과 20세기 초의 산업화, 기술화, 도시화에 따른 기대감이 공존했던 시대에 나타난 양식으로 1930년대 식민지 시대의 참혹했던 현실과 일본을 통해 들어온 신문명에 대한 동경으로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과 불안 죽음의 공포를 시로 승화한 이상의 문학에서도 그 흔적이 나타난다.

이상은 전후의 혼란과 세기말적 분위기 속에서 갈등하고 번민했을 뿐 아니라 당대의 모든 작가와 그러한 분위기 속에 창작을 했으며 그에 따른 양상을 극복과 반영으로 나타냈다.(윤수하, 2006)

이상은 불우하고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과 병약했던 자신의 삶을 통찰하는 시적 어구를 통해 현실을 모면하고자하였는데, 이상의 띄어쓰기를 무시한 파격적인 글쓰기 양식이나 다양한 언어적 유희와 시각적 형상을 통한 시적 기능은 무의식적 세계를 또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고 모든 존재의 본성과 변화에 주목하며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자아의 본질을 표현하는 초현실주의 양식과 상호적이다. 현실과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가 자의식에 깊숙이 깔려있는 이상의 작품은 세기말적 우울과 20세기 초 비약적인 발전에 세계가 휩싸인 희망과 혼돈 이라는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상황에 반기를 든 초현실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세기 초 인간의 자아를 분열 상태로 이끈 요소는 1차 세계대전만이 아니라 대도시, 자아의 사물화와 사물의 의인화, 기계문명, 속도, 매스미디어, 역사적 허무주의와 비평 등 여러 가지 요소로 나열해볼 수 있다. 20세기 초 정신과 영혼

을 비롯한 인간의 절대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고 강렬한 내면 표현이 당대를 사는 예술인의 소명과제가 되었다.(윤수하, 2006)

이상의 <오감도> 중 ‘시 제11호’와 ‘시 제13호’는 시적 주체의 신체훼손을 통해 공포의 주체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비합리적이며 비현실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사회적 풍경이 시인의 독창적인 글쓰기 방식으로 표현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시대적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해준다. ‘시 제11호’의 “내해골”과 흡사한 “사기컵”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는 “난데 없는팔”은 시적주체인 이상 자신의 팔이다. 자신의 신체 일부분의 훼손을 감행하려고 또 한편으로 이를 지키려 했던 팔 또한 시인 자신의 팔이다. “사기컵”과 같이 깨지기 쉬운 “내해골”과 찢어지기 쉬운 “백지”는 암울한 시대적 불안과 공포를 은유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어 독자들에게 환각적 이미지를 보여주며 초현실주의의 특징을 드러낸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하는 비합리주의와 무의식의 세계를 또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고 모든 사물의 본성과 변화에 주목하며 새로운 시각의 다양성을 이끄는 초현실주의적 특성을 이상의 ‘시 제11호’와 ‘시 제13호’를 통해 분석하면 [표2]와 같다.

이상 시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	
1	뛰어쓰기를 무시한 파격적인 글쓰기 양식을 통한 시적 표현은 무의식적 세계를 또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고 모든 존재의 본성과 변화에 주목하며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자아의 본질을 표현하는 초현실주의 양식과 상호적이다
2	사물과 대상에 대한 독특한 시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찰자로서 새로운 시각은 초현실주의의 비합리, 비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자아의 무의식 속에 흐르는 본질적인 자유가 원하는 세계를 표현 한다
3	일상적인 시각 체험이 아닌 환각이미지를 통해 자아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공포의식을 표현한 새로운 시적 기법은 초현실주의적 자동글쓰기 양식을 보여 준다

[표 2] 이상 시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

‘시 제11호’와 ‘시 제13호’는 시적 주체의 의식에 독립하여 주체의 신체를 훼손하려는 자율적이고 파편적인 형태의 환각이미지들이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환각’은 ‘충동’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실재’의 영역에 근접해 있다. (함동균, 2010) 여기서 말하는 ‘실재’의 영역은 현실

적 세계의 영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는 다른 영역에 속하는 자율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시 제11호’와 ‘시 제13호’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과 기대 속에서 무너져 가는 자아의 존재감 상실에 대한 불안감의 연속이며 급속하게 발전하는 20세기 초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비판적 시선의 솔직한 자기표현이다.

#### 4.2. 초현실주의에 나타난 환각이미지

19세기 말부터 발전된 정신분석학에 의하여 인간 심리에 대한 과학적 입장이 개진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인식의 변화 속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은 합리주의에 대한 저항을 담보로 하는 대안적 예술창작의 수단으로 광증의 언술을 활용하였다. (이은주, 2009)

자아의 진정한 존재감을 중시하며 자유로운 자신의 표현을 위시하는 초현실주의는 순수한 정신을 자동기술이라는 것으로 풀어내고, 심미적 도덕적 관념에서 벗어나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순수한 심리학적 자동현상이 이끄는 무의식의 흐름을 연구하였다.

식민지 시대의 참혹한 현실을 불안과 공포의 시적 어구로 풀어내고 시적 주체와 대상이 전복되는 아이러니한 환각이미지를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 후안 미로(Joan Miro, 1891-1976)의 작품에서 찾아내어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초현실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상의 시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학과 미술을 넘나드는 사고의 유연성을 유도하여 초현실주의적 시대의 아픔을 현시대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게 한다.

##### (1)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

에른스트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면서 프로타주, 콜라주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환각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미지를 화면에 연출하였다. 프로이트적인 잠재의식을 자동기술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화면에 제시함으로써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었던 자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세기말적 혼돈과 우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1]을 보면 한 여인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산



업화, 도시화에 기인한 형태로 보이는 정체모를 기계류로부터 신체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림 1]The wavering woman, 1923

황량한 도시화라는 공간에서 무참히 파괴되는 여인의 모습은 이상의 시에 등장하는 ‘깨지기 쉬운 사기컵’처럼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세기말적 공포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상실감이 우울한 색채와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이상의 시적표현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 (2)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

달리의 뛰어난 독창성과 기발한 상상력은 스스로를 천재라 칭하며 다양한 작품 속에 기존 인식의벽을 넘어서는 사고의 발상과 전환을 보여준다. 이성적, 합리주의적 사고에 순응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진정성을 탐구하며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행동과 광기 어린 달리의 작품에서 기존의 글쓰기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방법을 추구했던 이상의 문학세계에서와 같은 환각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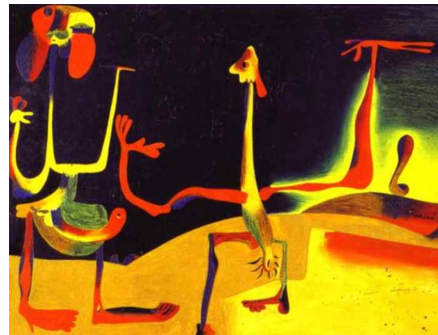
[그림 2]Premonition of civil war, 1936

[그림2]는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함과 전쟁의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절단된 팔과 다리는 또 다른 신체의 일부분이 되어

공포의 대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공포의 대상은 공포의 주체에 의해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환각이미지를 연출한다. 이는 이상의 시에 등장하는 공포의 주체와 대상의 전복이라는 병치상황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 자아의 의식의 흐름이 황량한 풍경 속에 묘사된 [그림2]를 통해 세기말적 우울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 (3) 후안 미로 (Joan Miro, 1893-1983)

스페인에서 태어난 미로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을 겪으면서 환각적이며 자동기술적인 기법을 이용한 작품세계를 펼친 초현실주의 화가이다.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열정을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기호를 풀어낸다.



[그림 3]Man and woman in front of pile of excrement, 1936

[그림3]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색채는 미로회화의 특징 중 하나로써 꿈과 몽상적인 분위기를 제시 하는데 강렬한 색채의 대비와 심하게 왜곡된 인물표현에서 환각적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신체 부분이 주체가 되어 각기 따로 움직이는 듯한 형태는 이상의 시에서 보여준 절단된 신체가 공포의 주체에서 또 다시 공포의 대상이 되는 비현실적인 모습과 유사하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간성이 상실되는 20세기 초 불안한 미래의 모습을 남, 녀의 모습으로 환원하여 무차별한 현대사회의 모순을 강렬한 보색대비와 형태의 왜곡으로 표현한 미로의 작품에서 이상이 시에서 보여준 자아의 상실감에서 오는 비현실적이며 환각적인 시적 표현이 떠오른다.

### 5.결론

21세기 현대사회는 사회적 다양한 모순과 경제적 불안, 급속도로 발전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전쟁이라는 공포 등에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이상이라는 시인이 느꼈던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던 불안과 우울은 병적인 스트레스 속에 괴로워하는 현대인과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오감도> 중 '시 제11호'와 '시 제13호'의 시적어구와 띄어쓰기를 생략한 과감한 시적표현에서 19세기 말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 20세기 초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기대감이 공존하던 시대에 자아로 눈을 돌려 개인의 내면에 중요시하고 자유로운 자아를 표현한 기존의 예술양식에 반기를 든 초현실주의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현실과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가 자의식 속에 깔려 있던 이상의 시세계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상의 불우한 삶과 식민지 시대의 참혹한 현실이 환각적 이미지로 표현된 '시 제11호'와 '시 제13호'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시적주체와 대상이 반복되고 엇갈리는 극단적인 텍스트로 읽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적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초현실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시 제11호'와 '시 제13호'의 환각이미지를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찾아봄으로써 인간 내부에 알 수 없는 무의식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시적 상상력을 통한 시각적 이미지 표현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5년의 짧은 시기에 남겼던 이상의 문학 속에서는 비단 초현실주의적 성격 외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영향으로 모더니즘 이후에 등단되는 모든 미술과 디자인의 영역에서 형식주의를 벗어난 표현주의, 큐비즘, 미래주의, 절대주의, 구성주의 등 다양한 예술양식을 유추할 수 있다.

문학의 텍스트를 다양한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디자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문자언어의 한계를 넘어 시각적 텍스트

로서의 창조적 상상력을 보여준 이상의 상호유기적인 시 세계가 인터랙티브한 디자인 환경 속에 하이퍼텍스트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현대 디자인의 다양한 매체와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상 시의 <오감도> 중 '시 제11호'와 '시 제13호'뿐 아니라 다른 작품도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열린 텍스트로서 시각적 다양성을 능동적인 글 읽기를 통해 일깨우는 것이 연구자의 바람이며 앞으로 문학-텍스트의 시각적 해석을 통해 하나의 예술형식이 말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와 기호로 재탄생되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고의 발상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가 비단 이상의 시로 시작했지만 문학의 다소 수동적인 수용자와의 교류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글 읽기를 통한 사고의 유연성 확대와 창의력이 수반되는 디자인적 사고를 갖기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권영민 (2012). 『이상 문학의 비밀 13』. 민음사.
- 권영민 역 (2009). 『이상전집1』. 뿔.
- 김동근 (2001). <오감도>의 작시논리와 텍스트의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 15.
- 김은영 (2005). 초현실주의 미술에 있어서 시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 『예술논집』.
- 박승희 (2006). 이상 시의 형상 언어적 의미와 글쓰기 전략. 『한국문학이론과비평』, 31.
- 윤수하 (2006). 이상 시의 표현주의 기법 연구. 『현대문학이론』, 29.
- 이은주 (2009). 초현실주의 회화에 나타난 광증의 변용적 수용에 관한 연구.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31.
- 정광흠 (2010). 초현실주의와 내면적 '대화'의 예술담론. 『인문과학연구』, 28.
- 정광흠 (2004). 초현실주의 이론과 현대미술. 『불어불문학연구』, 58.
- 한상철 (2006). 이상시의 <오감도> 시 제1호 분석. 『비평문학』, 24.
- 함동균 (2010) 이상 시의 환각이미지 연구. 『한국문예창작』.